



핀란드 노키아하우스

세계적 기업의 유리로 만든 투명한 본사 건물

90년대 휴대전화 통신분야에 진출해 세계적인 기업이 된 노키아, 그 본사 빌딩은 헬싱키 근교의 에스포라고 하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노키아의 본사를 상징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로 선정된 설계자는 두사람으로 헬싱키 공과대학 출신인 께가헤린과 도우모시토넨으로 유리를 덮어씌운 오브제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였다.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본 광경. 4개의 코어 샤프트가 옥상에 돌출해 있는 것이 보인다.



햇빛이 들어오는 남측동의 아트리움. 플로어링의 바닥과 천정이 스틸과 유리의 무기적(無機的)인 모양의 공간을 부드럽게 하고 있다.

노키아하우스는 헬싱키의 서부 에스포의 우거진 숲을 가지고 있는 반도의 끝단에 위치한다. 부지는 도로로 주위의 숲과 수역(水域)에서 격리되어 있다.

'다피오라 단지(團地)'에서 가깝고 '오다니아미 공과대학'과 '핀란드기술센터'에 인접해 있어 이 부지가 선정되었다.

1865년에 창업한 노키아는 핀란드에서 가장 지명도 있는 기업중의 한 곳으로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종이 펄프공장으로 창업하였다. 타이어, 가전에서 케이블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회사로 정평이 나왔다.

90년대부터 휴대전화, 통신분야의 제조시스템 구축에 특화하게 되고 부터 동사의 수익은 대폭 향



입구의 모습. 스틸 프레임의 케노피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공간. 상부의 유리 너머 2개동을 연결하는 공중 다리가 보인다.

상되었다. 휴대전화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게 된 노키아는 그러나 기업의 얼굴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의식이 아직은 희박하였다. 따라서 본사사옥을 건립하여 기업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다.

설계자로 선정된 곳은 헤린후 시로넨 아키텍처로 건물은 반도의 해안변에 평행하도록 축선(軸線)을 잡고 두 개의 아트리움을 나란히 두었으며 삼각형의 오피스 공간의 아트리움의 양측에 전개시켜 4각형의 평면을 구성하여 그들 두 개의 4각형은 중앙에 입구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입구홀에는 물에 면하여 건립된 좌우의 오피스 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6층 율의 공간에 걸려있다. 철과 유리로 구성된 투명감이 큰 화사(華奢)한 다리는 상부의 아치형 빔에서 현수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숲의 상부에 펼쳐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다리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실루엣을 비친다.

건물의 높이는 주위의 나무들 높이에 맞추어 결정하였다. 바다쪽을 보았을 때 도로 너머로 보이는 숲이 그리 스카이 라인에서 건물이 돌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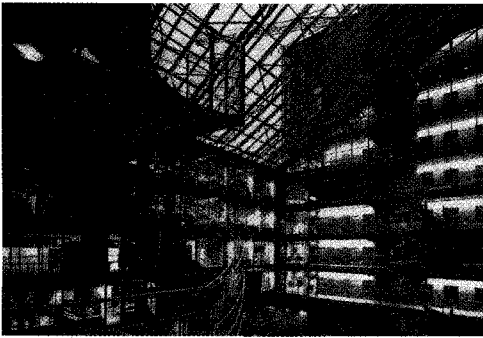
자연을 충분히 의식하여

헬싱키 근교의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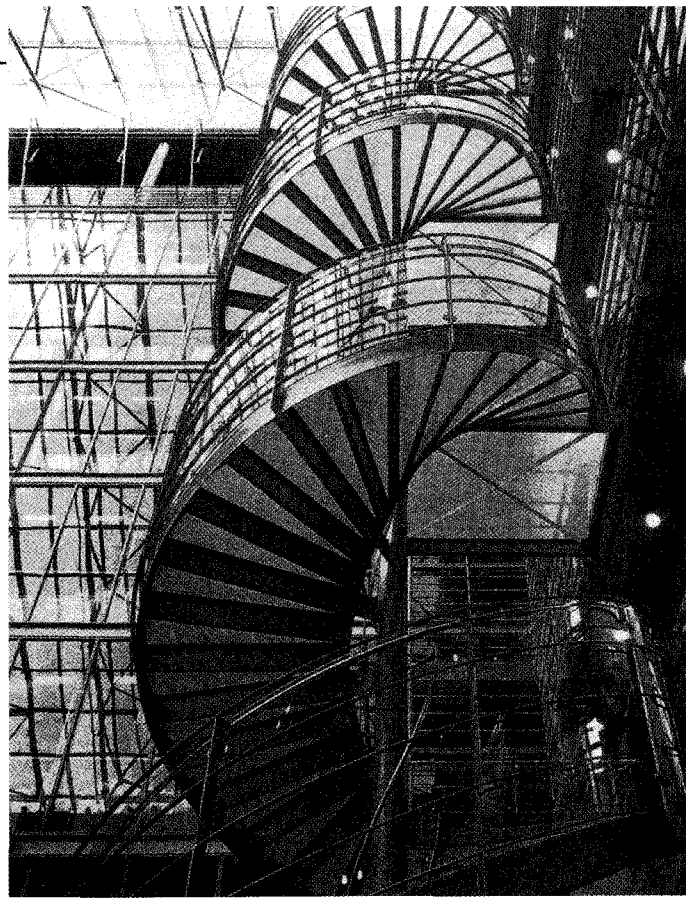
부정형의 다크 그린의 숲을 배경으로 투명한 유리로 덮인 두 개의 볼륨은 프리즘처럼 보여 정묘하게 빛나는 오브제와 같다. <外誌에서> ㉞



입구가 있는 서쪽 파사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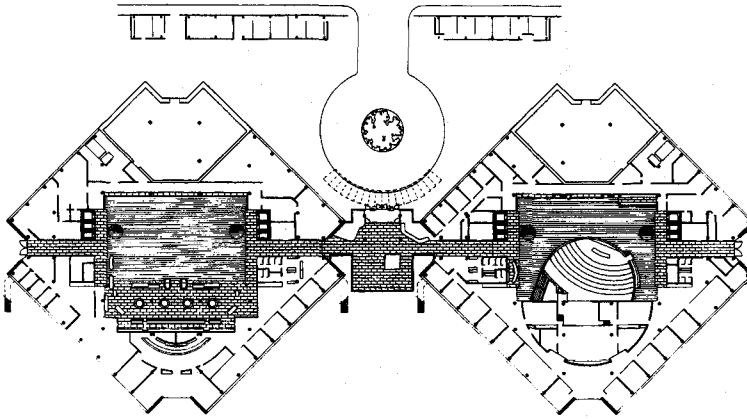
북쪽의 아트리움. 경사지붕은 전면을 트라이트로 하여 그날의 시간, 일기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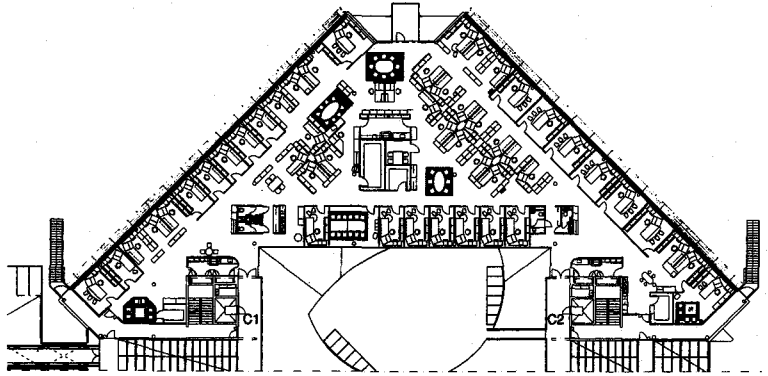
기둥과 같은 아트리움의 나선형 계단. 발판에는 프로그래스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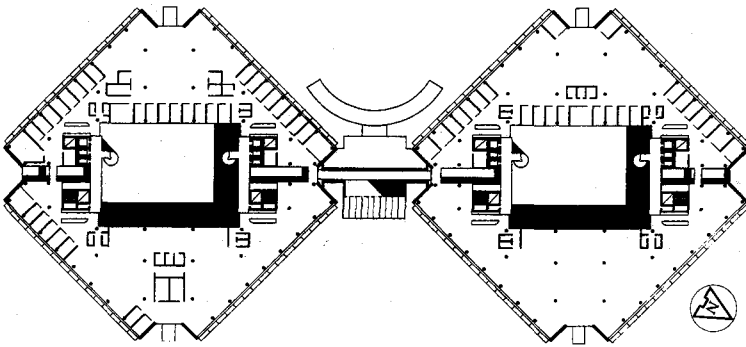
아트리움에 면한 방. 유리너머 건물안으로 오고가는 사람이 보여 활기찬 분위기가 전달되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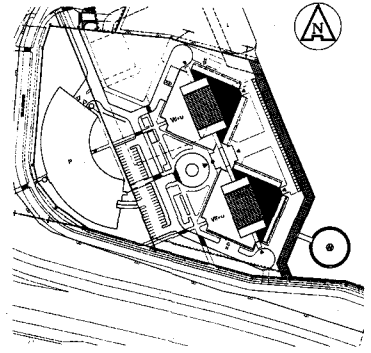
1층평면도(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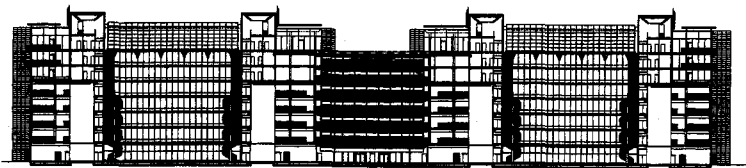
가구배치도



기준층평면도(1/1,500)



배치도



남북단면도



동서단면도